

몽골 임팩트의 일환으로서의 “몽골 침략”

윗카이치 야스히로 (四日市康博, 쇼와여자대학 비상근 강사)

들어가는 말

13 세기부터 14 세기에 걸쳐 몽골 제국 및 계승 정권은 동서유라시아 각지에 지배를 확대하였고, 그 영향은 다양한 지역과 사회로 뻗어갔다. 그 때문에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언어, 종교, 민족 등 문화적인 틀을 초월한 몽골적인 공통 양식이 존재한다¹. 그러한 경제적, 문화적 배경으로는 몽골의 패권에 따른 동서 교통 안정을 의미하는 ‘몽골의 평화’Pax Mongolica 가 있었다고 한다². 그러나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일면적인 시점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몽골 패권 하의 유라시아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몽골과 유라시아 각지의 문화권, 사회는 때때로 충돌, 상극, 공존, 융합하며 다각적이고 중층적으로 양자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즉, 유라시아 각지에서 이른바 ‘몽골충격’Mongol Impact 이 존재하였으며 그에 대한 각 지역, 각 사회의 반응이 존재했던 것을 인식해야만 교류의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몽골충격’은 단기간의 정치적, 군사적인 임팩트 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문화적 임팩트도 포함된다. 즉 ‘몽골의 평화’와 ‘몽골충격’은 동시에 존재하는 표리일체의 개념으로, 유라시아 전체의 ‘몽골의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각지에 있어서의 ‘몽골의 평화’와 그에 대한 각 지역과 사회의 반응을 알 필요가 있다³.

1. 몽골제국=원제국의 해역아시아 공략과 일본 침공

일본에의 ‘몽골의 침략’을 다루기 위해서는 몽골제국=원제국의 해역아시아 전체에 대한 경략 방침을 볼 필요가 있다. 몽골제국의 침공은 금조, 고려, 남송, 일본, 미얀마, 참파, 베트남, 자바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코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연동되어 있었다. 일본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일본에의 ‘몽골의 침략’은

¹ 몽골 제국기는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 지역에서 몽골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한어 등 발령된 문서의 언어에 관계없이 비슷한 문장 구조와 공통의 특정 어휘가 사용된 문서를 볼 수 있다. 몽골 제국기에 공통 양식을 가진 문서는 ‘몽골 제국 양식 문서’ 또는 ‘몽골 명령문서’ 등으로 불리운다. 자세한 것은 윗카이치 2015 및 Yokkaichi2015 를 참조.

² ‘몽골의 평화’Pax Mongolica 는 Pax Tatarica 라고도 칭해지며, Michael Prawdin 등이 그 개념을 제창하였다. (Prawdin 1937; 佐口透 1970; 四日市 2001 등을 참조). 단, Prawdin 과 사구치佐口 등, 초기의 ‘타타르의 평화’론에서 논하는 정치적, 군사적인 안정이 전 유라시아 규모로 실현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몽골의 평화’는 어디까지나 경제, 문화 면에 기여한 동서 교통의 안정화만을 뜻하는 한정적인 분석 개념이다. 따라서 유라시아에서의 몽골 제국 패권을 ‘몽골의 평화’라는 개념만으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일면적인 것이며 각지의 사회, 문화에 동요를 불러일으킨 ‘몽골 충격’Mongol Impact 도 동시에 언급하지 않는다면 편파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³ 이 문제에 관하여, 2016 년 12 월에 국제 심포지엄 ‘유라시아에서의 몽골 임팩트: 고고학, 역사학적 시점으로 본 ‘해역아시아에의 몽골 침략’ (International Symposium “Mongol Impact on Eurasia: Arche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Mongol Invasion”)이 쇼와여자대학昭和女子大学에서 개최되어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몽골, 호주,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 역사학자, 지역연구학자가 연구 보고를 실시하였고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진행:기쿠치, 윗카이치 등). 이 심포지엄의 성과는 단행본으로 2017 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원제국과 일본의 양국 간 외교만의 결과가 아니라 고려를 통한 삼국간의 국제 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나아가서는 고려의 독립 세력이었던 삼별초도 몽골과 일본 쌍방에 대해 외교적인 움직임에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이미 알려진 바 있듯이 일본 침공의 계기는 고려인 정신(廷臣)인 조이(趙彝)의 건언이었는데⁵ 조이가 건언을 했던 지원(至元) 2년(1265CE)이라는 타이밍은 몽골의 계속되는 침공에 중통(中統) 원년(1260) 고려가 몽골의 책봉을 받아들이고⁶, 남방에서는 중통 3년(1262)에 찐조 베트남이 삼년일공(조공)을 약속하여 안남국왕(安南國王)에 봉인되었으며⁷, 본격적인 남송 침공에 앞서 그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한 처우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국면이었다. 몽고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쟁의 최전선에서 귀순해온 적병들을 다음 전투의 전선에 내보내게 되어있었다⁸. 이 관습을 따르면 새로이 복속된 고려의 병사들도 다음 전장에 보내질 터였다. 그러나 그 직후인 지원 5년(1268) 양양 전투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송 공략이 개시되었음에도 고려군이 대 남송 공략전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동원된 것은 진도와 탐라에서 원에 대항하던 삼별초군의 평정과, 나아가 바다 건너에 위치하는 일본 공략이었다⁹. 일본에 침공한 군의 주체는 제 1차 일본침공(文永の役)과 제 2차 일본침공(弘安の役)의 동로군도 몽골 제국의 의한 일련의 고려 경략 말기에 파병되어 삼별초를 평정했던 힌두(忻都)군 및 고려에서 귀속한 홍복원(洪福源), 홍다구(洪茶丘)의 군대였다. 즉 몽골에 의한 일본 침략은 명백히 고려 경략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몽골의 일본 침공은 고려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몽골의 경략과도 서로 병행, 연동되어 있었다. 그 당시 동남아시아 방면에서는 찐조 베트남과의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안정되었으나¹⁰, 미얀마에 파견했던 사절에 대한 파간 왕조의 반발적인 대응으로 마찰이 증대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원 12년(1273)에 제 2차 미얀마 파견 사절이 파간 왕조에 의해 처형되어, 제 1차 일본 침공 3년 후인 지원 14년(1276)에 원조는 제 1차 미얀마 침공을 개시하기에 이른다¹¹. 이 때 원조는 동방에서의 일본 공략, 남송 공략, 나아가 남방에서는 파간 공략이라는 세 개의 경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1차 일본 침공, 제 1차 미얀마 침공이 좌절되자 이어서

⁴ 삼별초와 일본 간 교섭에 관해서는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1988(a) 및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 2010 를 참조. 또, 몽골 침공 이전의 남송, 고려, 베트남, 일본 외교에 대해서는 에노모토 아유무榎本涉 2015 를 참조.

⁵ 『元史』 卷二〇八, 外夷伝一, 日本

⁶ 『元史』 卷二〇八, 外夷伝一, 高麗

⁷ 『元史』 卷二〇九, 外夷伝二, 安南

⁸ 이와 같은 습관은 징기스칸과 우구데이칸이 중앙 아시아에서 이란에까지 이르는 원정을 통해 영토 확장을 했을 때에도 보인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 “세계정복자의 역사”에는 몽골어로 이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은 보이지 않으나, 페르시아어로는 ‘하자르’ hajar 라고 불린다.

⁹ 지원 5년(1268)에는 고려가 원제국 궁정에 대해 일만병사와 천 척의 배를 준비했다고 상주하여, 세조 쿠빌라이는 都統領ドルヂ를 파견하여 이를 보게 함과 동시에, 흑산黑山에서 일본에 이르는 루트를 시찰시켜, 고려 병력의 일본 경략을 위한 전용을 전제로 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元史』 卷六, 世祖紀三, 至元五年七月丙子)

¹⁰ 실제로는 베트남에서도 몽골에 의한 감독관 달가치의 파견과 엄격한 요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었으며 몽골에 대한 반감은 찐조 태종 사후 몽골과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¹¹ 『元史』 卷二一〇, 外夷傳三, 緬.

제 2 차 침공 준비를 시작하나, 남송의 수도인 임안(臨安)을 무혈 개성시켜 지원 15 년(1279)에는 애산 전투를 마지막으로 남송이 평정되는 것을 기다려, 지원 17 년(1281)에 제 2 차 원정이 실시되었다. 같은 시기에 동남 아시아 방면에서도 미얀마 침공의 움직임이 또다시 활발해져¹² 지원 19 년(1283)부터 남해 교역을 거점으로 하는 참파로의 침공을 개시¹³하였으며 지원 20 년(1284)에는 미얀마 침공이 본격화되었다¹⁴. 이 모든 것이 남송 공략군이 일본, 참파, 미얀마에 나뉘어 파견된 결과일 것이다¹⁵. 일본 침공이 고려 경략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뿐 아니라 남송 공략과도 연동되어 있었으며 남송 공략은 동남 아시아 방면의 참파, 베트남, 파간 공략과도 직접 연동되어 있었다. 즉 일본 침공은 해역아시아 전체에 대한 몽골제국=원제국의 경략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2. 해역아시아 국가에의 ‘몽골 충격’

앞의 절에서 살펴봤듯이, 몽골의 군사적 침공은 동부 해역아시아 국가 거의 전역에 이르는 것이었지만 ‘몽골 충격’이 그러한 군사적 임팩트 만을 칭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중장기에 걸친 경제적, 문화적인 임팩트도 각 지역에 널리 퍼졌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입장에서 각 지역에서의 ‘임팩트’는 어느 정도 공통성이 볼 수 있으나 그 ‘임팩트’에 대한 지역별 ‘반응’, 즉 정권과 사회의 반응과 임팩트의 영향에 의한 사회 변용은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고려의 경우 몽골과의 지속적인 교전과 화친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는 몽골=원제국이 태도를 완화한 것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항복하고 책봉을 받아들였다. 고려는 형식적으로는 몽골제국의 소령(속국)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려 왕가에 의한 독립 지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과 비슷한 국제 관계로는 위구르 왕국, 옹구트 왕국 등 중앙 유라시아에 위치한 몽골 제국에 귀순한 왕국들을 들 수 있다. 이 나라들은 몽골 제국=원제국의 통치 정책, 재정정책 등에 영향, 간섭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몽골로부터의 임팩트는 강력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이르렀다. 즉 역대 고려 왕은 공주(원조 황제의 딸)을 비로 맞아 부마가 되어, 그 왕자는 독로화秃魯花(뿔루계)로서 원제국 황제의 케시크(교대 근위 겸 엘리트 육성 기관)로 보내져 몽골 제국의 황족에 준하는 존재로 대우를 받았다. 고려 왕가는 그러한 왕가들 중에서도 특히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다¹⁶. 또한 고려 관제는 원제국적 관제에 준하도록 개정되어 고려 궁정의 왕족, 귀족 사이에서는 몽골 문화 수용도 진전되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몽골 제국과의 융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¹² 『元史』卷一一,世祖紀八,至元十七年二月丁丑

¹³ 『元史』卷二一〇,外夷傳三,占城

¹⁴ 『元史』卷二一〇,外夷傳三,緬

¹⁵ 나아가, 중죄인 및 몽골 병사, 남송에서 새로이 귀순한 ‘신부군新附軍’이 각각 일본, 참파, 미얀마로의 원정군에 배치되었다 (『元史』卷一二,世祖紀九,至元十九年十一月甲戌;

卷一二,世祖紀九,至元二十年五月戊午)

¹⁶ 몽골 제국=원제국내에서의 고려왕가의 위치 및 고려 왕정에의 반영에 관해서는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2013 (특히 ‘부마고려왕국의 탄생駙馬高麗国王の誕生’ (22-59 페이지); ‘고려왕위와 그 권익高麗王位下とその權益’ (60-104 페이지); ‘고려왕가와 몽골 황족의 통한 관계에 관한 각서高麗王家とモンゴル皇族の痛恨關係に関する覚書’ (105-146 페이지); ‘원제국 케시크제도와 고려 왕가元朝ケシク制度と高麗王家’ (147-203 페이지)) 를 참조.

강했으나 요즘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자도 있다¹⁷. 고려 왕가는 적극적으로 몽골 제국의 상층부의 일부가 됨으로써 ‘몽골의 평화’Pax Mongolica 에 의한 정치적 안정과 이문화 수용을 이루어 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에 의하면, 고려시대 왕권의 종북적 요소가 이후에 이어지는 조선시대에는 배제 되어, 그 대신 주자학이 체제교학으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였는데 이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이 원제국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원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려 불교는 중국 불교, 티벳 불교, 인도 불교와의 교류를 심화하였고 국가적 종교, 민중적 종교의 양면에 있어서 변용을 가져왔다¹⁸.

반대로 고려와는 대조적인 것이 베트남이다. 쩌조 베트남의 경우, 몽골의 공격을 받아 책봉을 받아들였으나, 몽골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정 간섭이 과하다는 반발이 거세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으로 수도인 탕롱이 함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몽골 군을 격퇴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 후 쩌조는 즉시 조공을 실시하여 포로를 반환하고 책봉을 다시 받아들였다¹⁹. 이것으로 쩌조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획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공에 따르는 경제적인 유대는 유지하면서도 몽골로부터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전쟁에 이긴 후 형식적으로 복속됨으로써 양국 간 관계를 정치적인 관계로부터 경제적인 관계로 변환하여, 이후 ‘몽골 충격’은 주로 경제면, 문화 면에 한정되었다²⁰. 이에 대해 베트남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냈거나, 내셔널리즘발양의 발단이 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한 편, ‘몽골의 평화’ 및 ‘몽골 충격’에 따른 유라시아=인도양 해역 세계 규모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제한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세 번째 패턴으로는 자바의 싱가포르 왕조, 마자파힛 왕조를 들 수 있다. 자바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원제국의 책봉체제에 복속되는 것을 거부했으나 원제국의 침공에 패배한 후 원제국으로 조공사절을 파견하였다. 이 때 마자파힛 왕이 원제국으로부터 왕공 王公에 봉해졌다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책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후 조공이 활발히 이루어진 점, 원제국과 자바는 전쟁 이전보다도 기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했다²¹. ‘원 자바 전쟁’을 계기로 장기적인 ‘몽골 충격’=조공에 따르는 통상 관계가 수립된 것이다. 더불어 이 통상 관계 수립은 자바 측 행동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원제국 측도 자바 전쟁시 초무사와 상인들을 자바 주변국으로 파견한 것이 알려져있다.

마지막으로 수마트라섬의 수마트라 왕국과 남인도 마발(판디아 왕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겠다. 이 나라들은 직접적으로는 몽골 제국=원제국의 침공도 받지 않았으며 책봉 요구도 없었다. 원제국 궁정에서는 태국, 수마트라섬에서 남인도에 걸친 나라들에 파병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사절을 파견하여 초유하는 것으로

¹⁷ 森平雅彦 2013 (특히 ‘고려, 원관계사연구의 의의와 과제高麗・元關係史研究の意義と課題’(1-21頁)) ; 李康漢 2016 등을 참조.

¹⁸ 森平雅彦 2013, 5頁, 291-309頁.

¹⁹ 원제국의 베트남 경략의 경위에 관해서는 야마모토 타츠로山本達郎 1950; 同 1975;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 2015(b)를 참조.

²⁰ 쩌조 베트남 및 참파와 원제국 간 통상, 경제 관계에 관해서는 모모키 시로桃木至朗 2011 및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 2015(b)를 참조.

²¹ 『元史』卷一八, 成宗紀一, 元貞元年九月丁亥; 卷一九, 成宗紀二, 大德元年十月乙卯

일단락 되었다. 실제로 지원 17년에는 쿨람, 마발, 자바, 베트남이 조공을 하고 있었고 지원 23년에는 마발, 람브리, 수마트라, 베트남을 포함한 12 개국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도 동남쪽 해안에 위치하는 마발(판디아 왕조)은 지원 16년부터 연우延祐 원년까지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십 수 회에 걸쳐 조공을 바쳤으며, 원제국도 여러 차례 마발에 사절을 파견했다. 마찬가지로 13세기 후반에 수마트라섬 북부에서 흥했던 신흥 이슬람 정권인 수마트라 왕국도 마발만큼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나 지원 19년 이후, 수차례 조공을 하였다. 말라카해협 서쪽에 위치한 나라들이 했던 조공의 특징을 보면, (1)정치적 목적보다 경제적 목적이 주목적인 조공을 했던 점, (2)단독으로 조공을 하는 것이 아닌 주변국과 경유지 사절과 동선하여 왕래한 점,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말라카 해협 서쪽 나라들에 대해서 책봉이 행해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세조 쿠빌라이 말기에는 조공을 위해 방문한 사절단이 상인을 대상으로 한 항해 금지에 의해 귀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조공 사절단에 해상 상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후자에 관해서는, 남해에 위치하는 나라들의 조공 사절이 원제국의 초무에 의해 조공에 응했던 것이 반영되어 있다. 단, 이 케이스들은 원제국도 제국으로서 패권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수마트라를 시작으로 해상의 나라들도 몽골 제국=원제국 패권을 스스로 통치권력의 배경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그런 의미로는 이 케이스도 중장기적인 ‘몽골 충격’이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몽골충격’ 재검토

그럼 위에서 언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에 입각하여 재차 일본에 대한 ‘몽골충격’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일본은 몽골제국 원제국으로부터의 책봉을 거부하여 그에 따른 마찰로 전쟁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바나 파간 등 몇몇 지역에서도 보이지만,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전쟁 후에도 원제국과는 정식 국교를 맺지 않았음에도 민간의 교역은 활기를 띤 것이 특징적이다.

유명한 “신안침몰선(해안유적)”은 지치(至治) 3년 6월에 경원(慶元, 현 Ningbo(寧波))에서 하카타(博多)를 향해 운항 중에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한반도 신안 해안부근까지 표류하여 침몰한 교역선이다. 이 침몰 유적의 선체로부터는 적재물이 거의 그대로 출토되었으며 실려 있던 도자기, 동전, 자단목 등은 방대한 수에 달한다²⁴. 이 신안침몰선이 경원을 출항한 시점에선 지원 18년/고안(弘安)4년(1281년) 제 2차 일본침공로부터 약 40여년이 지났던 것인데, 그 시기 전후 40년정도인 성종 테무르의

²² 『元史』 卷一八, 成宗紀一, 至元三十一年十月乙巳

²³ 마르코 폴로는 수마트라섬 Java la menor/Giava minore 의 8 왕국 중 바스만 왕국 royaume de Basma/regno di Basma (바사이 왕국), 수마트라 왕국 royaume de Samatra/regno di Samara, 다그로안 왕국 royaume de Daroian/regno di Dragoian, 람브리 왕국 royaume de Lanbri/regno di Lambri, 판푸르 왕국 (바루스 왕국) royaume de Fansur/regno di Fanfur 이 원제국 황제를 ‘대대칸’le grant kaan/il gran Can 이라 부르며 신종臣 從 했으나, 실제로는 직접 조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Marco/F, pp.171-174; Marco/R, pp.260-264.)

²⁴ 신안침몰선에 관해선 문화 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81-85; 문화 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88;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가와조예쇼지(1993); 무라이쇼스케(2013)을 참조할 것.

대덕(大德)연간 후기부터 문종 투그테무르의 지정(至正)연간 초기에 걸쳐-14 세기 전기에는 일본과 원제국간을 빈번히 소형범선이 왕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역시 원제국과 일본과의 전쟁 직후는 무역선이 양국간의 왕래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전쟁이 끝난 10 년 후인 지원(至元)29 년(1292)에는 일본 측이 세척의 배를 만들어 그 중 한척만이 경원(慶元, 현 Ningbo(寧波))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²⁶. 또한 일본 측에서도 쇼오(正応)3 년(1290)에 당선(唐船)으로부터 무역의 이익을 압류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미 수교가 재개되었다고 보인다²⁷. 즉 적어도 침공으로부터 10 년이 지나서 하카타(博多)와 경원(慶元) 간의 교역선이 재개되고 게다가 그로부터 10 년 후에는 일본과 원제국 간의 교역이 굉장한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2 차 침공 후 10 년간, 즉 세조 쿠빌라이 지원연간 후기는 재정 확대책을 꾀한 권력자 아허마(阿合馬)가 실각했지만, 이어 위구르인 재상인 생게(桑哥)의 천거를 받은 노세영(盧世榮)이 재정개혁에 착수하고, 또 생게(桑哥) 자신이 무슬림과 위구르인들을 재무 관료로 임명하여 아허마(阿合馬)와 동일하게 재정 확대책을 꾀한 시기였다. 이때 특히 말라카해협 이서(以西) 남해 여러나라가 한꺼번에 원제국에 조공을 실시했고 무슬림 상인들의 무역 활동도 활발해져 남해 무역은 크게 번창하였다²⁸. 하지만 에노모토 아유무(榎本涉)가 지적하듯이 일본과 원제국 간의 무역은 그 시류와는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²⁹. 앞서도 논했듯이 일본과 원제국 간에 범선이 왕성히 다니게 되는 것은 다음 황제인 성종 테무르 후기이고 전쟁 이후 세조 쿠빌라이 말기까지는 무역은 결코 활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물론 원제국과 일본의 전쟁이었다. 그렇다 해도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제 1, 2 차 일본 침공(文永・弘安の役)의 영향은 아니다. 그건 제 3 차 일본 침공이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역선이 통상을 재개한 지원 29 년(1292) 시점에 일본 침략 계획이 제기된 것이다.

지원 22 년(1285) 원제국에서는 제 3 차 일본 침공을 시행하고자 정동행성(征東行省, 정동행중서성)이 설치되고 재상으로 아타카이(阿塔海), 劉國傑, 陳巖, 홍다구(洪茶丘) 등이 임명되었다³⁰. 다음해 세조 쿠빌라이는 일본보다도 베트남 침공을 우선하라는 취지의 선언을 하지만, 고려에 근접한 동방삼왕가(東方三王家) 영토에서 반란이 계속 일어난 것 때문에 일단 일본 침공 중지 선언이 있게 된다. 동방삼왕가(東方三王家)의 반란이나 베트남, 참파, 자바와의 전쟁이 수습된 지원 29 년(1292)에 다시 일본을 침공한다는 건언(建言)이 있고 고려 충렬왕도 이에 찬동했기 때문에 제 3 차 일본

²⁵ 단 이후 원제국 연안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폭동이 원인이 되어 단기간 무역이 단절되는 일이 발생한다. 에노모토 와타루는 이것을 각각 ‘至大倭寇’ ‘泰定倭寇’ ‘元統倭寇’라 부르지만 에노모토 자신이 지적하듯이 이들 왜구는 폭동적 요소가 강한 단발적 사건이고 명대 이후 왜구와는 성격이 다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에노모토 2014 논문, 97-8 페이지).

²⁶ 『元史』 卷 17 世祖紀 14 至元 29 年 6 月 己巳

²⁷ 正応 3 年 4 月 25 日일자 關東御教書 (福岡市教育委員会 『大悲王院文書 10』) 에노모토(榎本)2006 논문, 243-244 페이지. 에노모토는 1280 년대 후기에는 원으로 건너간 승려가 존재하고 양국의 통행도 재개되었다고 보고 있다. (에노모토 2006 년 논문, 143-4 페이지; 에노모토 2014 논문 95 페이지)

²⁸ 이 시기 원제국의 제정, 상업 정책과 남해교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졸저 2015(b)를 참고. 또한 말라카해협 주변 여러 항구 왕국의 해상무역에 관해서는 후카미(深見純生) 2004 논문, 2006 논문을 참고할 것

²⁹ 에노모코 2006,2014 논문 참조,

³⁰ 『元史』 卷 13 世祖紀 10 至元 22 年 10 月 癸丑

침공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³¹. 하지만 이 시기에 이미 세조 쿠빌라이는 고령이었고 2년 뒤 지원 31년(1294)에 쿠빌라이가 서거하자 제 3차 일본 원정도 그대로 계획이 중지된다. 즉 제 1, 2차 일본 침공이 수습된 뒤 10년간은 아직 ‘전후(戰後)’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조건만 갖춰진다면 언제 세번째 일본 원정을 쿠빌라이가 명령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고 ‘전쟁 직전’이라 해도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원제국과 근접한 베트남이나 참파에게도 같았다. 하지만 결국 제 3차 일본 침공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참파, 베트남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전쟁 후에 제 2차 제 3차 침공이 가해진다. 그 후 자바에 대해서도 원정군이 파견된다. 이 차이는 역시 베트남, 참파, 자바가 남해 교역 근간 루트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당시 해상교통의 대동맥과는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베트남, 참파를 경유하는 ‘서양항로(西洋航路)’에 비해, 일본이나 류큐(琉球)이 후켄(福建)지역이나 마닐라 등과 연결되는 ‘동양항로(東洋航路)’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16세기 이후의 일이다³². 이 시점에 원제국은 남해를 경유하여 이슬람 여러나라까지 갈 수 있는 ‘서양항로(西洋航路)’ 연해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침공하여 다스렸다. 그것은 당연히 군사, 정치적 의미뿐만이 아닌 경제, 상업적 목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제국의 베트남 침공이나 이후 자바 침공에서도 상인이나 무역을 목적으로 귀순한 한무리를 원정군에 동행시켰다³³. 하지만 일본침공에서는 그러한 무역 진흥의 목적을 가진 이들을 동행시킨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고려 침공, 남송 침공의 연장선상으로 일본 침공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경의 차이때문에 제 3차 일본 침공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 아닐까? 세조 쿠빌라이 사후에 즉위한 성종 테무르는 대덕(大德)3년에 선승 일산일령(一山一寧)을 사절로 일본에 보내 조공을 독촉하는데³⁴, 쿠빌라이 때와 비교하여 일본에 대한 자세가 매우 부드러워 지고, 이미 무력으로 책봉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성종 테무르 이후도 중앙유라시아 방면에서는 몽골종족간의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을 포함한 해역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에 대한 군사 침공은 거의 안 보이게 된다. 따라서 성종 테무르 재위 기간이 돼서야 일본과 원제국 간의 전쟁도 겨우 전후(戰後)를 맞이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일원간의 교역도 활기를 띠는 것도 바로 이때 이후이다.

그럼 원제국과 일본간의 전쟁 이전과 이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주장에 의하면 일송(日宋), 일원(日元) 간의 교역에는 무역선의 도래 빈도가 규제되고, 일본인 도항 규제, 동전유통금지 등 규제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명목상의 원칙일 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³⁵. 하지만 원제국의 제 1차 일본 침공 직후부터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고안 4년(1281)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는 새로이 입국하는 외국인을

³¹ 『高麗史』卷 29 世家 30 忠烈王 3 忠烈王 18年 8月 丁未; 卷 30 世家 30 忠烈王 3 忠烈王 18年 9月 壬午

³² 동양항로, 서양항로에 관해서는 오키카치 2015(b)를 참고할 것.

³³ 오키카치 2015(b), 26-29 페이지.

³⁴ 『元史』卷 20 成宗紀 3 大德 3年 3月 癸巳. 그리고 이 국서의 사본이 가나자와문고(金沢文庫)에 남아 있다.(『金沢文庫古文書』6773)

³⁵ 무라이 2013(a)논문, 264-266 페이지.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쇼안 2년(1300)에는 진제이탄다이(鎭西探題)에 외국에서 오는 이들의 관리나 감독의 권한을 부여하고 “異賊防禁”이란 명목 하에 진제이탄다이(鎭西探題)의 군사기능까지 강화시켰다³⁶.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카타(博多)에는 점차 공권력의 지배가 침투하게 됐다고 무라이(村井)는 설명한다. 하지만 하카타를 구성하는 하카다하마(博多浜)와 오키노하마(息浜)는 그 후 지배자가 각각 달라 도시로서 하카타의 일체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공권력의 관여가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제국과 일본과의 전쟁이라는 단기적 군사 충격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장기 충격으로서 그 후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원제국 측에도 있다. 에노모토는 원제국과 일본의 전쟁 이후 일원 교역의 전개에 대해, 종래 있었던 전쟁 이후에 무역정책이 소극적이었다는 설을 부정하고, 원제국 측의 왜선 경계(警戒)의 근거를 일본의 귀순 실패에 의한 불복종이었다고 결론짓는다³⁷. 나 또한 이 논리에 찬성한다. 원의 일본침공이란 전쟁 자체가 일본을 신하로 책봉 체제에 편입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후 원제국 측의 경계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동이라기 보다는 조공국으로서 일본을 관리 하에 두지 못했던 것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원제국 측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무역선이 오고 간 사실은 양국 간의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양국 정부의 몰교섭이나 상호불신을 뛰어 넘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특히 일본 측에서의 접촉이 강했고 일본과 원제국 간을 왕래하는 무역선은 중국의 범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일본 측의 수요를 따르는 형식으로 운행되었다³⁸. 이러한 일원(日元)무역선은 일본 측에서는 “寺社造當料唐船”라 불려졌는데³⁹,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역 구조나 내용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⁴⁰. 예를 들어 경제적인 면에서 원제국에서부터도 송(宋)의 동전을 많이 포함한 대량의 중국 동전이 일본에 유입되고 은이 일본과 원제국 쌍방향으로 유통하게 되는데⁴¹, 몽골제국기는 유라시아 전체를 은이 널리 유통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원제국 하에서 회화, 도자기, 차문화 등은 일본의 대륙문물 수용과

³⁶ 鎌倉幕府追加法 488 条 (異国警固条々) 701 条 (牒使來着時在所并問答法事) (『中世法制史料集』第一卷, 249 頁, 307 頁) ; 무라이 2013 논문, 265 페이지.

³⁷ 에노모토 2007(b)논문, 106-117 페이지 ; 모리카즈미 1975 논문, 366-370, 511-525 페이지. 江靜 2000 논문, 江靜 2002 논문도 참조.

³⁸ 그 이유로는 일본에서 원제국으로 향했던 교역선은 모두 원제국 측의 관청 폐지, 하역금지기간과 관계없이 원의 항구(주로 경원(慶元)에 입항했지만 일본에 귀항할 때는 관청 폐지, 하역금지기간 중에는 출항이 금지되었고 금지령이 풀려야 비로소 출항이 가능했다. 자세한 것은 윗카이치 2016 논문에서 논하였다.

³⁹ “寺社造當料唐船”에 관해서는 무라이 2003 논문, 2013 논문; 나카무라 2013 논문 등을 참조. 또한 “寺社造當料唐船” 개별 사례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1991 논문 ; 후쿠시마 1996 논문 ; 나가이 2010 논문도 참고.

⁴⁰ 남송(南宋)기에 하카타(博多)에서 많이 출토된 「綱」銘 및 「綱首」銘墨書陶磁器는 원대(元代)가 되면 거의 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송대(宋代) 綱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구조가 원대(元代)에는 변용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신안해저유물에서는 「綱司」銘의 목간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綱司」가 「綱首」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⁴¹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은의 흐름은 『至正四明續志』卷 5 市舶物貨 細色에 왜은(倭銀)이라 나오며, 일본의 은, 특히 쓰시마(對馬) 은이 경원(慶元(현재의 Ningbo))을 경유하여 원제국에 유입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하카타(博多)의 세이후쿠지(聖福寺)에서는 에도시대(江戸時代) 교호(享保)원년(1716)에 원대 은 자물쇠가 출토되었고 그 때 상황이 이토도가이(伊藤東涯)의 『壺簪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은 유통이 결코 일방적인 한방향이 아닌 중국에서 일본으로도 은 유통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壺簪錄』卷四)

불가분의 관계였고, 이는 명(明)대와 무로마치(室町) 시기에도 계승되었다⁴². 이들 중에는 반드시 몽골풍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제국 통치하의 화베이(華北), 장난(江南)에서 계승, 발전해 간 것으로 물론 원대(元代)에는 원대의 특징이 있다⁴³. 원제국 후기에 일본과 원제국 간의 승려의 왕래는 전례없는 융성을 맞이 하는데, 무라이나 에노모토는 이 시기를 “도래승의 세기(渡來僧の世紀)”이라 부르고 있다⁴⁴. 이런 문화교류는 언뜻 보면 ‘몽골충격’과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몽골의 패권 하에서 융성한 경제, 문화교류가 가져온 결과물이므로 ‘몽골충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⁴⁵.

맺음말 - ‘몽골충격’은 무엇이었나?

일본만을 주체로 놓고 본다면 ‘몽골충격’이란 전쟁 그 자체가 최대이며 주체적 충격이었다고 여겨지기 십상이다. 실제 종래의 몽골침공연구는, 주로 전쟁 전의 외교관계나 전쟁 만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 왔듯이 해역아시아의 다른 여러 지역의 사례를 감안해 본다면 ‘몽골충격’이란 결코 전쟁만이 아닌 오히려 정치적 관계, 경제적 관계가 사회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 ‘장기적 충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발생한 정치적 충격이 이후 경제적, 문화적 충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언하자면 일본 침공 때는 원제국과 일본(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조정) 양쪽으로부터 무역과 수교에 관한 규제가 가해져, 그것이 무역구조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었는데, 그런 상황과 이후의 그에 대한 반향으로 생긴 무역 융성은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앞서 무라이의 논문에서 다뤘듯이 일본과 몽골의 전쟁 직후부터 일본 측은 무역 규제를 급속히 강화하여 새로운 도항자를 규제하여 이제까지 중국 측에 거점을 둔 한인(漢人)상인(소위 ‘송상(宋商)’) 주체의 무역에서, 하카타에 거점을 둔 한인상인(‘송상(宋商)’의 자손들)로 주체가 옮겨지고, 더욱이 한인 상인들의 일본 정착이 늘면서 무로마치(室町) = 명대(明代)에는 ‘송상(宋商)’의 자손들을 포함한 일본 상인에게 주체가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가마쿠라(鎌倉) 난보쿠초(南北朝) = 원대(元代)는

⁴² 구체적인 예로 무라이 2003 논문 ; 에노모토 2003 논문 등을 참조.

⁴³ 단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대륙문화, 선종문화 중에 자주 보이는 ‘몽고문자’ 즉 파스파글자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몽골글자를 파스파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반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처에서 파스파글자가 남아있다. 예를들어 차단지에 사용된 후켄(福建), 광둥(廣東)산 ‘褐袖四耳壺(후에 루손의 항아리라 불리게 된다)’나 청자에도 가끔 한자의 좋은 구가 새겨지는데 효고(兵庫), 가고시마(鹿兒島) 하카타(博多), 신안해안, 오키나와(沖縄) 등에서 파스파 글자의 도장이 새겨진 도자기나 청자가 출토되었다(다츠노시 매장문화재센터 2015; 이시가키시 총무부 市史編集課 2008 ; 가고시마현 川辺郡知覧町 教育위원회 2006) . 또 무로마치(室町) 후기의 임제종 서승 교쿠인에이요(玉隱英瑣)는 스스로의 이름을 파스파 글자로 표기한 도장을 작성하는데 (日本經濟新聞社 2003) , 이것은 파스파 글자의 한자음과의 대응표를 표기한 서적인 『蒙古字韻』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15,6 세기까지는 교쿠인(玉隱)이 주지였던 겐초지(建長寺), 혹은 가나자와문고(金沢文庫) 등에 일본으로 건너온 『蒙古字韻』이 남겨졌다고 여겨진다.

⁴⁴ 무라이 2013(b)논문; 에노모토 2007 논문 등을 참조.

⁴⁵ 실제 원제국과 일본의 전쟁 때는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는 일본에 온 도래승이나 송에 건너간 승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수집과 스파이활동을 하였지만 “도래승의 세기”라 불린 원제국기 승려 왕래의 활기는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이 침략해 온 시기의 선승의 활동과 그 후 전개에 관해서는 이토 2009 논문과 이토 2010 논문을 참조할 것.

중(日中)무역 구조가 전환하는 과도기였고 그것은 원제국과 일본과의 전쟁과 그 후의 충격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분량의 한계로 굳이 일본의 ‘몽골충격’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지 않고 ‘몽골충격’의 군사적, 정치적 충격에 한하여 이들 단기적 충격이 경제적, 문화적 충격으로 연결됐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진정 이 명제가 옳은지는 일본 이외의 지역도 시야에 두며 구체적 사례를 다루며 검토해야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겠다.

史料

- 『元史』：『元史』校点本. 15 冊. 北京：中华书局, 1976.
- 『蒙古字韻』：照那斯图, 杨耐思 (編) 『蒙古字韻校本』北京：民族出版社, 1987.
- 『四明續志』：中國地志研究會 (編) 『至正四明續志』宋元地方志叢書. 台北：中國地志研究會, 1978.
- 『高麗史』：国書刊行会 (編) 『高麗史』上中下. 国書刊行会, 1977.
- 『盍簪錄』：森銑三ほか (編) 『隨筆百花苑 6』東京：中央公論社, 1983 所収.
- 『鎌倉幕府法追加法』：佐藤進一、池内義資 (編) 『中世法律史料集第一卷鎌倉幕府法』東京：岩波書店, 1955 所収.
- Marco Polo. *Le Devisement du Monde* (マルコ=ポーロ 『世界の記述』) :
- Marco/F/Benedetto: Luigi Foscolo Benedetto (ed.), *il Milione : Prima Edizione Integrale*. Firenze, 1928.
 - Marco/R/Einaudi: Giovanni Battista Ramusio (ed.), *I viaggi di Marco Polo. In Navigazioni e viaggi*. vol.3, Venezia, 1559 (Giulio Einaudi(re.ed.), Torino, 1980.)

参考文献

- 榎本涉 2003 「陸仁と道元文信をめぐって」『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東京：吉川弘文館, 2007, 212-269 頁 (原載：「一四世紀後半、日本に渡来した人々」『遙かなる中世』20, 2003.)
- 榎本涉 2006 「初期日元貿易と人的交流」『宋代の長江流域——社会経済史の観点から』東京：汲古書店. 231-272 頁.
- 榎本涉 2007(a)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東京：吉川弘文館.
- 榎本涉 2007(b) 「元朝の倭船対策と日元貿易」『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東京：吉川弘文館, 106-175 頁.
- 榎本涉 2014 「宋元交替と日本」『岩波講座日本歴史第七卷中世 2』東京：岩波書店. 77-112 頁.
- 榎本涉 2015 「13 世紀の東アジア情勢と高麗・大越・日本」『日越交流における歴史、社会、文化の諸課題』京都：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17-24 頁.
- 深見純生 2004 「元代のマラッカ海峡——通路か拠点か」『東南アジア——歴史と文化』18. 86-98 頁.
- 深見純生 2006 「ターンプラリンガの発展と 13 世紀東南アジアのコマーシャルブーム」『国際文化論集』34. 81-97 頁.
- 福島金治 1991 「鎌倉極楽寺の唐船派遣について」『地方史研究』233.
- 福島金治 1996 「中世鎌倉律院と海上交易権——熱海船の性格と鎌倉大仏造営料唐船の派遣事情」『鎌倉大仏研究』1
- 石井正敏 2010 「文永八年の三別抄牒状について」『中央大学文学部紀要史学』56, 1-34 頁.
- 石垣市総務部市史編集課 2008. 『石垣市史考古ビジュアル版 5 陶磁器から見た交流史』石垣市.
- 伊藤幸司 2009 「外交と禅僧——東アジア通交圏における禅僧の役割」『中国——社会と文化』24. 41-70 頁.
- 伊藤幸司 2010 「東アジアをまたぐ禅宗世界」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対外関係 4 倭寇と「日本国王」』東京：吉川弘文館. 30-56 頁.
- 江静 2000 「元代赴日中国商船銳減原因初探」『中日文化論叢』1998.
- 江静 2002 <元代中日通商考略> 《中日关系史料与研究》1.
- 鹿児島県川辺郡知覧町教育委員会 2006. 『国指定遺跡知覧城 (三)』知覧町：鹿児島県川辺郡知覧町教育委員会.
- 川添昭二 1993 「鎌倉末期の対外関係と博多——新安沈没船木簡・東福寺・承天寺」『鎌倉時代文化伝播の研究』東京：吉川弘文館.

- 李康漢 2016「高麗におけるモンゴルのインパクトとレスポンス」『国際シンポジウム「ユーラシアにおけるモンゴルのインパクト」予稿集』東京：昭和女子大学.
- 桃木至朗 2011『中世大越国家の成立と変容』吹田：大阪大学出版会.
- 森克己 1975『日宋貿易の研究』東京：国書刊行会.
- 森平雅彦 2013『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名古屋：名古屋大学出版会.
-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編) 1981-85『新安海底遺物 (資料篇 I-III)』서울：한국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編) 1988『新安海底遺物 (綜合篇)』서울：한국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文化財庁, 国立海洋遺物展示館) (編) 2006『新安船 The Shinan wreck』1-3. 목포: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村井章介 1988(a)「高麗・三別抄の叛乱と蒙古襲来前夜の日本」『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東京：校倉書房, 1988, 144-188頁.
- 村井章介 1988(b)「蒙古襲来と鎮西探題の成立」『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東京：校倉書房, 1988, 189-235頁 (原載『史学雑誌』87/4, 1978より改編)
- 村井章介 2003「日元交通と禪律文化」『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東京大学出版会, 2013, 171-213頁 (原載：『日本の時代史 10 南北朝の動乱』東京：吉川弘文館, 2003.)
- 村井章介 2010「蒙古襲来と異文化接触」『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東京大学出版会, 2013, 375-400 (原載：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日本の対外関係 4 倭寇と「日本国王」』東京：吉川弘文館, 2010.)
- 村井章介 2013(a)「寺社造営料唐船を見直す——貿易・文化交流・沈船」『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東京大学出版会, 2013, 241-272頁.
- 村井章介 2013(b)。「肖像画・賛から見た禪の日中交流」『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東京大学出版会, 2013, 273-294頁.
- 永井晋 2010「金沢文庫古文書に見る唐船派遣資料」『金沢文庫研究』324.
- 中村翼 2010「鎌倉幕府の「唐船」関係法令の検討——「博多における権門貿易」説の批判的継承のために」『鎌倉遺文研究』25.
- 中村翼 2013「日元貿易期の海商と鎌倉・室町幕府——寺社造営料唐船の歴史的位罫」『ヒストリア』241.
- 日本経済新聞社, 東京国立博物館 (編) 2003.『鎌倉——禪の源流』東京：日本経済新聞社.
- Prawdin, Michael 1937. *The Mongol Empire: Its Rise and Legacy*. (tr.) Eden and Cedar Paul. Brunswick and London: Aldinetransaction.
- たつの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 2015.『謎のパスパ文字と光明山』たつの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
- 佐口透 1970「タートルの平和」『岩波講座世界歴史中世 3』東京：岩波書店.
- 四日市康博 2001「パクス・モンゴリカ——東西交通の繁栄」『しにか』140, 50-55頁
- 四日市康博 2015(a)「ユーラシア的視点から見たイル=ハン朝公文書——イル=ハン朝公文書研究の序論として」『史苑』75/2, 257-300頁.
- 四日市康博 2015(b)「13~14世紀における中国-東南アジアの通交と貿易——元朝から見た西洋航路上の南海諸国との関係を中心に」『昭和女子大学国際文化研究所紀要』21, 13-41頁.
- Yokkaichi Yasuhiro 2015. (ed.) Special Issue: *Multilingual Documents and Multiethnic Society in Mongol-Ruled Iran*, in *Orient* 50.
- 四日市康博 2016「14世紀の日本と元朝の海上交易における新安船」『신안선발굴 4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아시아·태평양해양네트워크와수중문화유산』목포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4-184頁.